한국학연구 제62집 | 447~477쪽 | 2021.8.

‘황도유학’의 계보학

–동양문화학회 · 다이토(大東)문화학원 · 사문회(斯文會)에서 ‘황도’와 ‘국체’–

강해수*

〈차 례〉

1. 일본에서 ‘황도유학’ 연구의 위상
2. 동양문화학회와 “황도를 보익(輔翼)하는 유학”
3. 다이토문화협회 · 다이토문화학원 설립과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
4. 사문회에서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
5. “유도의 진흥”과 “정치의 윤리화”
6. ‘전후’ 일본에서 ‘황도유학(교)’ 담론의 행방–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1920년대부터 태평양전쟁 종전에 이르는 제국 일본의 ‘유교 · 유학’ 담론을 ‘황도유학(교)’의 계보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여기에는 대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구사조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동과 만주국 성립에 따른 국제연맹 탈퇴 후의 ‘고립 일본’이라는 ‘비상시’의 ‘황도’ 및 ‘국체’ 창출의 필요성과 연관 있다. 이는 “황도 및 국체에 순화(醇化)된 유교”로서의 ‘일본유교’ 혹은 ‘황도유학(교)’ 개념의 창출로 이어진다. 이의 진원지가 바로 다이토(大東)문화학원이다. 그러나 이의 설립은 대내적으로 ‘한문과(漢文科)폐지’론의 목소리에 대항해 발족된 ‘동양문화학회’가 그 기반이 되었다. “황도 및 국체에 순화(醇化)된 유교”라는 내러티브는 또 당시 최대의 ‘유교 · 유학(자)’ 단체였던 ‘사문학회’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유교’ 혹은 ‘황도유학(교)’의 계보학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나아가, 당해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 정책적으로 ‘실천(articulation)’되었던 ‘황도유학’ 담론의 사고(思考)연환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초적 작업이 될 것이다.

* 메이죠(名城)대학

[주제어] 황도, 황도유학, 일본유교, 한학진흥, 국체, 동양문화학회, 다이토문화학원, 사문회, 정치의 윤리화

"유교는 우리 국체에 순화되어 일본유교를 건설하였고, 우리 국민도덕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컸다"(문부성편찬『국체의 본의(本義)』, 1937)

"메이지(明治)유신 당시에 유교사상은 이미 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오랫동안 단련한 결과 그 불순물을 제거하여 완전히 황도에 순화되었다. (중략) 양심으로 일관하는 도덕과 정치 실행을 목적으로 유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자학에서부터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를 황도에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미토(水戸)학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이지마 다다오[飯島忠夫]『일본의 유교』[국체의 본의 해설 총서], 교학국, 1938)

1. 일본에서 '황도유학' 연구의 위상

이 글은 1920년대부터 태평양전쟁 종전에 이르는 제국 일본의 '유교・유학' 담론을 '황도유학(교)'론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일본에서 '황도불교'의 연구는 일정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황도유학(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물론 일본사회에 점하는 불교와 유교의 사회적 위상과도 관련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주창된 '황도유학' 및 그 정책에 관한 연구가 나름의 축적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그 연구 성과 중에는 논의 기점을 조선총독부와 '조선유도연합회'와의 유착관계 상,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의 「왕도유도에서 황도유도로」(1939.12)에서 출발하고 있는 논고가 다수 보인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 같은 한국에서의 연구와는 달리, 황도유학(교) 담론을 '다이토(大東)문화학원(현 다이토문화대학의 전신)'을 거점으로 한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로서

의 '일본유교'론을 중심으로 고찰해왔다.[1] 다이토문화학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황도 및 국체에 순화(醇化)된 유교를 주지(主旨)로 하여 동양문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2]를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로 하여 설립되었고, 1934년 1월 27일에는 다이토문화학원 관계자들에 의해 "일본유교선양회 발회식 및 선철제"가 거행된다. 다이토문화학원(및 '다이토문화협회')는 앞으로 논하는 것처럼, 1920년대 일본의 '한학진흥' 운동의 결과로서 설립되었고,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라는 서사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도쿄의 유시마(湯島)성당을 거점으로 한 당시 최대의 유교・유학(연구)관련 단체인 '사문회(1918년 9월에 설립)'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식민지 조선을 포함하여,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로써 '유교・유학에서의 다이쇼(大正)기・쇼와전기(昭和前期)'적 담론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황도유학'이란 용어가 일본에서 사용된 유일한 예는, '무궁회(無窮會)'라는 단체가 "황도유학의 본질 천명을 목적으로" 1939년 2월 재단법인으로서 새로 출발할 때다. 즉 "우리 국체・민생의 정화를 발휘하기 위해 황도유학을 천명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문물의 공구・조사・편찬・저역 및 화한(和漢)도서를 수집해 사도(斯道) 연구자에게 이용토록 한다"[3]라고 법인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무궁회는 1940년에 '동양문화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동년 4월에 모집한 3년제의 본과・연구과의 '학생채용 취의서'에서 "황도유학의 본질을 천명하고, 사도(斯道)의 대가를 조성(造成)함을 목적으로 한다"[4]라고 밝히고 있다.[5] 무

1) 「도의' 담론 : '황도유학'과 식민지 조선」,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동아시아한국학의 형성－근대성과 식민성의 착종』, 소명출판, 2013. 「"皇道에 醇化・融合된 유교"로서의 '황도유학(교)' 담론－다이토(大東)文化學院과 경학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9 및 이를 보완한 「「皇道に醇化融合したる儒教」としての「皇道儒学(教)」言説―大東文化学院と朝鮮経学院との連環」, 『アジア文化研究』 47, 国際基督教大学アジア文化研究所, 2021 등.

2) 大東文化学院編, 『大東文化学院要覧』, 1933, 12쪽.

3) 『日本文化団体年鑑』, 1943. 『戦時下日本文化団体事典』 제3권, 1990, 351쪽. 여기에 관해서는 또 「皇道に醇化融合したる儒教」としての「皇道儒学(教)」言説―大東文化学院と朝鮮経学院との連環」을 참조 바람.

4) 池田秀雄, 「我が学問修業の道場無窮会に想う」, 『東洋文化』 75, 無窮会, 1995.9, 220쪽. 浅沼薫奈, 「池田英雄著『修学の道場回想録―七十年前の想い出の糸をたぐりて―』(承前)―「大東文化学院」と「財団法人無窮会」との「分身同心」について」, 『大東文化大学史研究紀要』 4, 2020, 83쪽.

궁회는 다이토문화학원의 초대총장인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 1867-1952)가 1915년 4월에 조직화하여 1925년 2월에 설립하였다. 이 무궁회는 다이토문화학원의 설립인가(1923년 9월 23일. 개교식은 이듬해 1월 8일) 이전인 동년 2월 11일의 다이토문화협회 창립에 관계했던 '동양문화학회'(1921년 5월에 설립)를 "흡수, 합병하면서"[6]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황도유학'이란 용어의 사용을 공식화한 1941년 3월에 비해 2년 정도 앞서는 것이다.[7]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다이토문화협회와 다이토문화학원의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그것이 일본 유교단체 등에 미친 영향과 그 담론공간에 관해, 동양문화학회와 사문회[8]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작업은 '황도유학(교)'로서의 '유교・유학에서의 다이쇼・쇼와전기'적 담론연구를 위한 일환이 되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당해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 정책적으로 '실천(articulation)'되었던 '황도유학' 담론의 원류 및 연환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초적 작업이 될 것이다.

---

5) 그 밖에 '황도유교'이라는 용어가 1934년 6월의 岩澤巌, 「皇道を扶翼する儒教」, 『日本之儒教』, 日本儒教宣揚会, 1934, 47쪽에 이미 보이고 있다.

6) 浅沼薫奈, 「大東文化学院創設者たちの教育思想－平沼騏一郎・小川平吉・木下成太郎の相互関係から」, 『人文科学』 17, 大東文化大学, 2012, 103쪽.

7) 『朝鮮社会教育要覧』, 朝鮮総督府学務局社会教育課, 1941.10. 渡辺学・阿部洋編『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51(下), 龍溪書舎, 1989, 69쪽. 즉 조선총독부는 "종래 유도로 통칭되던 것을 이제부터 황도유학으로 칭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는 "쇼와16년 3월 통첩을 발"한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따라 "황도유학(皇道儒學)을 확립하기 위한 유위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1년 3월 17일에 명륜전문학원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皇道儒學의 殿堂―今日, 明倫專門學校 開校式」, 『每日申報』, 1942.5.1, 2면). 조선총독부의 '황도유학' 용어 공식화와 무궁회와의 연관관계 여부는 현재 사료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8) 유시마성당을 거점으로 하는, 당시 최대의 '유교・유학' 관련의 '대중'적인 미디어가 『斯文』이었다. 그밖에 대학 내 학술적 미디어로서는 東京帝国大学文学部支那哲文学研究室発行『漢学雑誌』(漢学会, 창간호는 1933. 4), 日本大学漢文学会発行『会誌』(창간호는 1933.2) 등이 있었다.

2. 동양문화학회와 “황도를 보익(輔翼)하는 유학”

1) ‘한학진흥’과 동양문화학회의 결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양문화학회는 1921년 5월에 설립되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동년 3월 18일의 「한학진흥에 관한 건의안」 제1안이, 중의원의원인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1865-1942)를 비롯한 “제씨의 연명”[9]으로 중의원에 제출된 이후였다.

> 한학은 고래로 우리나라의 문화에 공헌하고 국민사상의 함양에 도움이 된 바가 크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를 기다리지 않고 이를 진흥시킬 방도를 논의하는 일은 각하(刻下)의 급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관해 적절한 방법을 세울 것을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10]

당시 일본 내의 ‘한문과(漢文科)폐지’론의 목소리에 대항해, 와세다대학교 수인 마키노 겐지로(牧野謙次郎, 1863-1937)와 마쓰히라 야스쿠니(松平康国, 1863-1945)가 가쓰라 고쥬로(桂五十郎, 1868-1938) 및 마쓰모토 고(松本洪, 1876-1965) 등과 함께 “한학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한학진흥회를 창립하고, 뒤이어 동양문화학회로 개칭”할 것을 꾀했다.[11] 1918년 9월에 창립된 사문회[12]가 “그 성질 상, 이런 종류의 운동에 어떠한 부분의 민첩성을 결할 소지가 없지 않은 바, 이 기회에 별도로 한 단체를 만들”[13] 필요성이 있다는, 사문회 내부의 견해도 제시되었던 상황이었다. 학회 초대 회장으로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가 추대되었고, 이사로서는 사문회의 주요

---

9) 기노시타 시게타로를 비롯한 건의안 제출자 11명 및 찬성자 58명의 명단의 상세는, 『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大東文化協会・大東文化学院, 1932, 2~3쪽 및 尾花清編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大東文化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5, 21~22쪽을 참조.

10) 『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3쪽.

11)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7~15쪽. 『斯文六十年史』, 斯文学会, 1929, 327쪽.

12) 사문회는 1880년 6월에 설립된 ‘사문학회(斯文学会)’를 계승하는 형태로 창립되었다.

13) 『東洋文化學會會報』創刊号, 東洋文化學會, 1921.8, 74쪽.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8쪽.

구성원이자 도쿄제국대학교수였던 우노 데쓰토(宇野哲人, 1875-1974) 및 시오노야 온(鹽谷温, 1878-1962)이 취임했다.[14] 이 「동양문화학회 설립의 취지」를 보면 "지나(支那)지식의 중추인 한학, 즉 유교의 진흥"과 "국전(國典)·국사"와의 상호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15] 더불어 동양문화학회 회규 제1조를 "우리 국체·민생과 외래사조와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 동양문화의 중추인 한학을 진흥시키고 이를 현대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16]라고 명시함으로써, '외래사조'를 수용하는 기반이 되는 '한학'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여기에서의 한학의 위상은 "우리 국체·민생"에 대해 결코 종속적이지 않다. 한편 동양문화학회는 16개조에 걸친 "한학진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바, 그 첫 번째가 "한학의 융체(隆替)는 국운의 소장에 관계한다"라는 것이다. 즉 "황통일계의 가족주의를 본위로 하는 **국체를 보익하는 한학**, 즉 유학은 지금은 바야흐로 쇠멸로 귀착되려고 한다"(강조-인용자)라며, "국체를 보익하는 한학, 즉 한학"의 '쇠멸'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난다. 두 번째는 "한학은 교육칙어의 좋은 주석(注釋)", 즉 "유교의 경전은 그 깊은 뜻을 설명하기에 좋은 주석으로서, 유교를 실은 한문은 우리 교육계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한문과폐지'를 주장하는 학계·사회적 동향에 이의를 표명한다.[17] 나아가 일곱 번째 의견으로서 제시된 것이 "한문은 대만·조선·만몽의 경영에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옛 일본과는 달리 대만과 조선을 이미 우리 판도에 회귀시키고, 만몽지방에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략) 국가의 통치 상 및 그 밖의 대책으로서도 우리 국민은 결코 한자·한문의 지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동화의 실효를 거두고자 한다면 동문(同文)의 편의에 의한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고 논한다.[18]

---

14)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12쪽 및 57쪽.
15) 『東洋文化學會會報』 創刊号, 2쪽.
16) 『東洋文化學會會報』 創刊号, 4쪽.
17) 『東洋文化學會會報』 創刊号, 6쪽.
18) 『東洋文化學會會報』 創刊号, 8~9쪽.

2) 동양문화학회의 회규 개정과 "황도를 보익하는 유학"

동양문화학회는 1923년 4월 16일에 학회 평의원회(당시의 회장은 제2대인 히라누마 기이치로)를 개최한다. 1921년도 회규에 약간의 자구 상의 변경[19]이 있는 1922년도 회규를 개정하는 새 회규에 대해 토론한 후 확정하는 것이 평의원회 개최의 목적이었다. 개정안 입안을 주도한 인물은 이사인 마키노 겐지로[20]로서, "수정의 주요 부분은 제1조"였다. 우선 1922년도 회규 1조는 "본회는 나라의 사명과 시대를 추세를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국체・민성과 외래사상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 주로 고래 동양문화의 중추로서 우리나라의 석학・홍유의 세련을 거친 **한학・유교**를 진흥시키고 이를 현대에 활용하며, 아울러 동양문화의 진상(眞相)을 현창함을 목적으로 한다"(강조－인용자)였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본회는 제국의 천직과 세운의 추세를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국체・민성의 정화를 발휘하며, 외래의 각종 사상을 융화(融化)시키고 정교(正敎)・풍속의 중화(中和)・순후(醇厚)를 기대하기 위해, 고래 우리나라 선각의 세련을 거친 **황도를 보익하는 유학**을 진흥시켜 이를 현대에 활용하고, 아울러 동양문화의 본질을 천명・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강조－인용자)였다. 마키노는 이 개정안에 대해 "'황도를 보익하는'이라는 문자를 추가하고 또 한학・유교를 유학으로 바꾸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유학은 지나의 유학 그대로의 것이 아닌, **우리 국체에 순화되고 황도를 보익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학이라 해도 노장(老莊)・양묵(楊墨)과 같은 제가의 학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공자의 가르침 바로 그것임으로, 거기에 의구심이 일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했다"(강조－인용자)라며, 개정안의 취지 설명을 행하고 있다.[21] 이 제1조의 개정 원

---

19) 여기에 관해서는,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89~91쪽을 참조.

20) 마키노는 "무궁회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소속된 지식인들 내의 히라누마의 학사(學事) 고문 격"(浅沼薫奈, 「大東文化学院創設者たちの教育思想－平沼騏一郎・小川平吉・木下成太郎の相互関係から」, 108쪽)이였다.

21) 「東洋文化学会々告」, 『東洋文化』 1, 東洋文化学会, 1924.1, 108~109쪽.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287~288쪽.

안은 평의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마키노의 이 같은 회규 개정안에 이르기까지는 일본 정계 내에 다음과 같은 동향이 있었다. 먼저 1922년 2월 10일에 중의원에 제출된 「한학진흥에 관한 건의안」 제2안[22]을 둘러싼 3월 17일의 "중의원 위원회에서의 심의2"에서는, 건의안 제출자의 한사람인 소에지마 기이치(副島義一, 1866-1947)가 "일본화된 한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23] 한편 3장에서 상술하는 것처럼, 1923년 3월 3일에 제출된 「한학진흥에 관한 건의안」 제3안을 둘러싼 5일의 중의원 본회의 심의에서 기노시타 시게타로는 "소위 국체에 순화된 바의 유교"라는 개념을 공표한다.[24] 또한 심의 이후의 다이토문화협회 보조를 위한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통과 후에 열린, 3월 24일의 "귀족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추가예산을 위한 희망결의"에서는 "우리 국체에 순화되고 조종(祖宗)・열성의 유훈인 황도를 보익하는 한학, 즉 유교"라는 서사도 등장했다.[25] 상술한 동양문화학회의 회규 개정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한 학회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라 추측된다. 실제 마키노는 다이토문화협회 창립으로 귀결되는 다섯 차례의 협의에 첫 번째만 제외하고 네 차례 모두 참석한 바 있다.[26]

위 개정안 확정 후인 1921년 8월에 창간된 동양문화학회의 기관지 『동양문화학회회보』(1921년 8월 창간호)는 9월의 제2호 발간 후인 1924년 1월에, "창립의 취의를 철저히 하기 위해"[27] 『동양문화』로 이름을 바꾸어 제1호를 발간한다. 『동양문화』 제1호는 1923년 4월 16일에 개정된 학회의 신 회규, 즉 "황도를 보익하는 유학"의 진흥을 학회지 모두에 내걸고 새롭게 출발하는

---

22) 이때의 건의안 제출자는 기노시타 시게타로를 비롯한 14명, 찬성자는 79명이었다.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110~111쪽을 참조.

23)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134~149쪽. 『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6쪽에는 3월 17일과 18일 양일의 "위원회에서는 한학에는 국체와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 한학의 정계(正系)는 국가주의・군주주의로서 한학이라 해도 우리나라 한학은 일본에 순화된 한학이다. 메이지 15년의 칙유와 교육칙어는 말할 것 없고, 『유학강요(幼學綱要)』 서에 의해서도 이륜(彝倫)・도덕은 한학과 가장 부합하는 바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사료 상의 확인은 어렵다.

24)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248~253쪽.

25)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285~286쪽.

26) 『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9~11쪽.

27) 「発刊の辞」, 『東洋文化』 1.

것이다. 제1호의 모두 왼쪽에는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하기 시작한 "금차의 재화(災禍)", 즉 '관동대진재(大震災)' 후의 11월에 발포된 다이쇼천황의 조서도 함께 싣고 있다. 「발간의 사(辭)」에는 "본회와 분신・동지인 다이토문화협회를 일으켰고, (중략) 한학교육을 위주로 하는 동양문화대학을 세울 준비로서 다이토문화학원을 새롭게 개교하려고 한다. 즉 본회가 다년간에 걸쳐 역설한 한학진흥사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반드시 상당한 공과(功果)를 거둘 것을 믿는 바이다"라는 문장도 보인다.[28]

3. 다이토문화협회・다이토문화학원 설립과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

한편 위의 「한학진흥에 관한 건의안」 제출과는 별도로 "민간에 유력한 기본단체를 조직할 필요를 느끼고, 다이쇼 11년(1922년-인용자) 전후에 5회에 걸쳐 협의를 거듭"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 같은 "수차례의 협의 결과, 진흥책의 제1보로서 한학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종래의 이런 종류의 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모체를 만들어 사학(斯學) 발전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그 단체 이름을 동양문화연구소로 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여타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다이토문화협회로 명명하고 실행위원회가 정부와 교섭을 거듭해 착착 건의의 실현을 기하"였다. 1923년 2월 11일 "기원(紀元)의 가절"에 "정식으로 다이토문화협회를 창립하고, 오키 엔키치(大木遠吉)백작을 추대하여 회두로 하고, 조야의 명사들도 여기에 가맹했다"라고 한다.[29] 오키 엔키치(1871-1926)는 다이토문화협회 창립 후의 '성립 취의 연설'을

28) 「発刊の辞」, 『東洋文化』 1.

29) 『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9~11쪽. 다섯 차례에 걸친 협의에 참석한 인사에 대해서도 이곳을 참조. 협회 이름은 "동양이라는 말을 피하고 다이토문화협회"로 정해졌다(『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235쪽). 즉 "발족이 예정된 협회의 명칭은 '동양문화협회'였다. 그러나 그 명칭은 마키노 겐지로 등의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다이토문화협회로 낙착되었다"(尾花清「解説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の真実の解明のために―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の解説のためのノート」,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463쪽)라는 것이다.

통해, '한학・유도'는 "원래 우리나라 국민의 중심에 그 사상이 존재하였기에 가령 외국에서 일어난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소화되고 순화되어, 우리나라의 특이한 교육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발달하였다"[30]라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다이토문화협회 및 다이토문화학원의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해 살펴보자. 1923년 3월 3일에 제출된 「한학진흥에 관한 건의안」 제3안의 중의원 심의위원장이었던 기노시타 시게타로는 건의안에 대한 설명에서, "정의・평화・인도의 내용의 정신은,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충효・인의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내용의 정신방면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국체에 순화된 바의 유교**입니다"[31](강조－인용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의 이 발언에서 "국체에 순화된 바의 유교"로서의 '한학진흥"이라는, 일본사회 내의 방향성이 처음으로 표명된다. 이 발언에서는 '유교'가 '순화'하는 측인 '국체'에 종속된다. '유교', 즉 "한학의 진흥"이란 어디까지나 "황도를 선양하는" 데 그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서사 방식에 의해 유교를 순화하는 주체로서의 '국체'의 존재・자화상도 새롭게 상정되어 온다. 아무튼 기노시타위원장은 상기의 발언과 함께 "다이토문화협회를 보조할 것을 희망하면서 본회의에 추가예산안의 제출을 희망하자, 정부위원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위원은 정부에 대해 10개년에 걸쳐 175만엔의 보조를 내줄 것을 요망"하면서 "다이쇼 12년도의 추가예산안으로써 15만엔의 보조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32] 그런데 이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하여 귀족원에 회부되면서, 3월 24일의 귀족원 예산원회에서는 '추가예산을 위한 희망결의'가 이루어졌다. 즉 "동양문화의 연원이 일찍이 **우리 국체에 순화되고 조종・열성의 유훈인 황도를 보익하는 한학, 즉 유교**"(강조－인용자)가 "유신 이래 구미의 문물을 이입함에 급"한 나머지 명맥 상 위기에 봉착해있다. "근년에 노유(老儒)・석학이 (중략) 점차 조락하여 현금에 바야흐로 그 자취가 끊어

30) 大東文化歷史資料館編,『大東文化大学の歩んできた道』, 大東文化学園, 2018[초판은 2013], 6~7쪽.
31)『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253쪽.
32)『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8쪽.

지려는" 이때에 "선후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중략) 대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33] 이 같은 전개를 돌아보는 『창립 10주년 기념 다이토문화협회・다이토문화학원 창립연혁』(1932)의 저자(다이토문화협회・다이토문화학원)는 "이리하여 다년간 관계 식자들에 의해 주창되어온 한학, 즉 유교진흥 운동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일단이 구현되었다"라고 평가한다. 즉 다이토문화협회는 위와 같은 "의회의 협찬"과 "정부의 찬조"를 거쳐 "곧바로 사학(斯道)진흥의 구체적 방책을 짜 널리 천하에 동지를 모집하려 했다"라는 것이다.[34] 그 결과 다이토문화협회의 "목적 및 사업"의 "제2조 1"항은 "우리 황도를 따르고 국체에 순화된 유교에 의해 국민도의의 부식을 꾀할 것"[35]으로 정해졌다. 이후 다이토문화협회 내의 한학연구소는 1923년 9월 20일에 다이토문화학원의 설립인가를 획득하여, 이듬해 1월 28일에 개교식을 가졌다. 개교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유의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를 주지(主旨)로 하고, 동양문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었다(강조－인용자).[36] 하지만 다이토문화협회와 다이토문화학원의 "우리 황도를 따르고 국체에 순화된 유교" 및 "우리나라 고유의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의 선양이라는 설립 모토도, 기본적으로는 상기 기노시타의 건의안 설명에서의 "국체에 순화된 바의 유교" 및 귀족원 예산위원회의 '희망결의'인 "우리 국체에 순화되고 조종・열성의 유훈인 황도를 보익하는 한학, 즉 유교"라는 서사에 규정되었다 볼 수 있다. 한편 다이토문화학원의 시업식이 행해진 1924년 1월 11일에 초대총장(1923년 9월~1925년 9월)

---

33)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285~286쪽. 한편 1929년 10월 4일에서 1931년 6월 27일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지냈던 다케베 긴이치(武部欽一, 1881-1955)는 학무국장 재직 시에 쓴 「演示 經學의 振興과 明倫學院의 使命」(『경학원잡지』 34, 1932.3)에서, 이 '희망결의'를 그대로 인용(47쪽)하고 있다.

34) 『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9~11쪽.

35) 『大東文化学院要覧』, 1932, 7쪽.

36) 『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12쪽. 개교에 이르는 상세에 관해서는 또, 中山久四郎『現代日本に於ける支那学研究の実状』, 務省文化事業部, 1928, 109쪽을 참조. 한편 교육학자 오바나 기요시(尾花清)는 "'건의'에서 '학원'이 창립되는 과정은, ['한학' 일반에서 '국체에 순화된 유교'에로의 이중 삼중의 수정・한정(나는 전환이라고도 부르고 싶다)]의 과정이었다는 가설을 제기"(尾花清, 「解説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の真実の解明のために―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の解説のためのノート」, 『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 439쪽)한다.

인 하라누마 기이치로가 「제1회 시업식 훈시」에서 발언하는 바, 이는 향후 학원의 이념과 '황학'으로서의 교과 내용을 강조하는 훈시가 되었다. 즉 "본 학원에서는 이 근본방침에 의거해 이천년 이래의 황도를 보익하고 우리 국체에 순화된 유학을 진흥시키고 보급함을 안목으로 한다. 학칙에서는 특히 황학의 한 과정을 개설해 그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중략) 그리하여 그 경학이 황도의 훈독이 된다면 주로 이를 학습시키는 것이 당연하다"[37]라는 것이다. 이 훈시에서도 제시된 다이토문화학원의 개교 목적, 즉 "황도를 보익하고 우리 국체에 순화된 유교"는 히라누마 스스로가 1915년에 무궁회를 조직했던 염원, 그리고 그 당시부터 '한학진흥'의 의의를 환기하는 사회의 한 동향이 결실을 맺었음을 상징하는 서사가 되었다.

4. 사문회에서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

1) 사문회 결성과 교육칙어에 나타난 "유교의 정신"

사문회는 원래 "구학부흥"·"유학부흥"[38]을 위해 1880년 6월 6일에 설립된 '사문학회'[39]를 '계승'하는 형태로, 1918년 9월에 창립되었다. 「재단법인 사문회 취의서」를 보면, 교육칙어는 "유교의 정신과 부합"하며 그 "교육칙어의 성지는 유도를 빌려 점점 천명되는 만큼 유도의 본의는 교육칙어에 의해 더욱 권위를 더해가야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다만 이 취의서에서 "우리

37) 平沼騏一郎, 「大東文化学院第一回始業式訓示」, 『同学』 1, 大東文化学院同学会, 1925.10. 『大東文化学院創立過程基本史料』, 379~380쪽.

38) 『斯文会六十年史』, 斯文会, 1929, 「叙」1~2쪽.

39) 1929년에 출간된 『사문육십년사』에는 「다이쇼 7년(1918년－인용자) 9월에 사문학회는 일시 해산하여, 연경회(研経会)·동아학술연구회·한문학회를 합병해 새롭게 재단법인 사문회를 조직했다. 그 목적은 유도를 위주로 동아의 학술을 천명함으로써 메이지천황의 교육에 관한 칙어의 성지를 익찬하고, 우리 국체의 정화를 발휘하는데 있다. 이 정신으로써 취의서를 기초하고 기부행위를 제정하며 역원을 선정했다」(『斯文会六十年史』, 316~317쪽)라고 적시한다. 이 문장에서도 사문회의 조직 목적이 "유도를 위주로 동아의 학술을 천명"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칙어의 성지를 익찬"함에 있음이 재차 서술되어 있다.

나라 고유의 도덕으로서 황조(皇祖)・황종(皇宗)의 유훈"・"우리 덕교"라는 것이 무엇을 지시하는 용어인지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도의 정신과 부합"하고, 유교와 "융합・혼화(渾化)되는"전제로서만 거론될 뿐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유도의 본의"가 "교육칙어에 의해 더욱 권위를 더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점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 동지들이 서로 의논하고 함께 근심하며 만나, 크게 유도를 진작시키고 그로써 교육칙어 성지의 선양을 기하는 연유이다"라는 것이 사문회 발족의 배경이 되었다.[40] 여기에는 앞 장에서 논한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라는 서사와는 달리 '유도'가 '황도'에 종속된 개념은 결코 아니다.

초대 사문회 회장인 고마쓰바라 에이타로(小松原英太郎, 1852-1919)의 연설 「본회의 취지」는 위의 「사문회 취의서」를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이 대전은 정치・경제의 모든 방면에 비상한 변동을 가져왔지만, 특히 그 사상계의 영향은 식자들이 깊이 고려해야할 바다. 이때에 이르러 천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덕교에 심대한 의의를 지닌 유교의 정신을 발휘하여 세도・인심을 비보(裨補)할 것을 꾀하는 것이 사문회의 일대(一大) 임무라 믿는다"라고 하여,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이 사문회 결성의 주된 동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사문회는 "조야・제현의 찬조에 의해 유도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도덕을 강명(講明)"하려 했다고, 고마쓰바라는 말한다.[41] 즉 "우리나라 고유의 도덕"이 반영된 '교육칙어'는 "유도로써" '강명'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고마쓰바라의 언급에는, '군자의 나라' 일본의 "도덕인의의설・제도전장(典章)의 의(儀)"로써 '사도'를 인식하려 했던[42] 사문학회와는 상이한 국면의 서사가 보인다. 하나 "유도의 정신"・"유도의 본의" 그 자체는 교육칙어로 나타난 "우리 덕교"에 대해 "더욱 권위"를 부여한 존재이다. 여기에는 사문회가, 1920년 초반의 다이토문화학원에 의해 발화된 "황도에 융화(융화)된 유교"・"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와는 명백히 차이하는 입

40) 「財団法人 斯文会趣意書」, 『斯文』 1-1, 1919. 6.
41) 『斯文』 1-1, 5쪽.
42) 「斯文学会開設告文」, 『斯文学会報告書』 1, 斯文学会, 1881.11, 1쪽(작성은 1880.2).

장을 취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문회가 내건 기치와 성격은 1930, 40년대에 들어와 일변한다.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1944년 1월 28일의 「'대동아건설과 유교' 좌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도쿄제국대학교수이자 사문회의 편집부장이었던 다카다 신지(高田眞治, 1893-1975)는 "사문회는 황도에 순화된 유교의 연찬과 발양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43]라 명언한다. 또한 정보국 제2문예과장이었던 이노우에 시로(井上司朗, 1903-1991)도 "사문회는 황도에 순화된 유교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44]라며, 당시 사문회의 지향 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는 다이토문화학원에서 발화된 "황도에 순화된 유교"라는 서사가 사문회에 끼친 영향을 명확히 드러내는 발언이다. 이하에서는 그 영향의 과정에 관해 살펴본다.

1932년 10월 13일에 거행된 다이토문화협회・다이토문화학원의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귀족원의장 겸 사문회 회장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사토(徳川家達, 1863－1940)는 「축사」에서, 다이토문화협회・다이토문화학원의 "교학의 요점은 우리 황도를 따르고 우리나라에 순화된 유교에 의거하는 데 있다. 이는 실로 시무에 합당한 것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45]라고 발언한다. 한편 1934년 2월에 발간된 『사문』「휘보」에는, 다이토문화학원 내에서 발족된 '일본유교선양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한다.

> 다이토문화학원에서는 종래 황도에 순화된 유교의 천명・선전에 노력해왔지만, 목하의 비상시에 즈음해 더욱더 이의 선전・보급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통감하고 요번에 일본유교선양회를 조직했다. 그리하여 대대적으로 이런 활동을 일으켜 일본의 사상계를 통솔하고, 인심을 일신시키려 기도하고 있다. 실로 사계를 위한 쾌거라 불러야할 것이다.[46]

---

43) 「大東亜建設と儒教」座談会」, 『斯文』 26－4, 斯文会, 1944. 4, 8쪽.
44) 「大東亜建設と儒教」座談会」, 17쪽.
45) 「祝辞」, 『創立十周年記念号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 創立十周年記念会, 1932, 16쪽.
46) 「彙報」, 『斯文』 16編2号, 1934.2.

제국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로 인한 "비상시에 즈음해", "황도에 순화된 유교의 천명・선전"을 설립 모토로 해온 다이토문화학원이 일본유교선양회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이런 활동을 일으켜 일본의 사상계를 통솔하고" 있다고, 사문회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유시마(湯道)성당 부흥과 범람하는 "황도에 순화된 유교"・"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

이처럼 다이토문화학원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유교선양회가 향후에도 "일본의 사상계를 통솔"하게 되는 과정은, 1923년 9월 1일의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된 "유시마성당 부흥 준공식"(1935년 4월 4일)을 맞이해 '성당부흥기성회' 회장이기도 했던 도쿠가와가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부흥기성회의 사업은 이로써 끝나지만 이 당우(堂宇) 운영은 사문회의 앞으로의 일에 속한다. 생각건대, 우리 황도에 융화(融和)된 유교의 취지를 선양하여 인심을 계도하고 세도를 광구함이 심심(甚深)하다"[47]라고 발언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쿠가와는 "우리 황도에 융화된 유교의 취지를 선양"함을, '당우 운영' 상의 "사문회의 앞으로의 일"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가쿠슈인(學習院) 중등과 교수로서 다이토문화학원에 출강하고 있었던 사문회 교육부장 이이지마 다다오(飯島忠男, 1875-1954)[48]도 "메이지유신 이래 교육 시설에 다대한 변화가 생겨났다. 한편으로는 황도가 융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양학이 진기하여 유시마성당은 결국 국민교육의 중심이 되는 힘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황도 안에는 유교가 충분히 혼융되어 있다. 유교는 황도에 순화된 것이다. 공부자의 논어는 황도의 최량의 주석서임을 교육칙어 기초에 참가했던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옹은 말하고 있다"[49]라며, 부흥준공에 대한 축하의 말을 기고했다.

---

47) 『斯文』 17-5[湯島聖堂復興記念号], 1935.5, 「祝辞」, 3쪽.
48) 이이지마는 1937년까지 가쿠슈인 중등과 교수를 지낸 후, 1940년에는 다이토문화학원 학무장(學務長)에 취임하고 또 차장(1942년 기준)으로서 교단에 섰다.
49) 「湯島聖堂の復興を賀す」, 『斯文』 17-5, 「復興の喜び」, 24쪽.

그런데 사문회의 “황도에 순화된 유교”론 수용은 도쿄제국대학의 한학자이자 사문회 교화부장이었던 시오노야 온(鹽谷温, 1878-1962)이 전년 1월에 발표한 「쇼와왕도와 세계평화」에서, “공자의 도(道)는 우리 간나가라노미치(惟神の道)와 혼연(渾然)・융화(融和)해 국체의 정화를 발휘해왔”으며 따라서 “수신・국전(国典)과 함께 우리 국체에 순화된 한학을 진흥시키는 것보다 나은 일은 없다.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 또 국제연맹 이탈에 관한 성칙을 배송(拜誦)하여 공구・감격함에 그지없다”라는 언급에서 이미 보이고 있다.[50] 다시 말해 일본의 ‘한학’이란 “우리 간나가라노미치와 혼연・융화”해 온 “공자의 도”인 것이다. 시오노야의 이 문장을 보는 한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1923년 11월 10일)가 발포된 지 10년 이상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중국 유래의 “공자의 도”는 결코 그 ‘우월성(priority)’을 상실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연맹 이탈”로 인한 ‘비상시’에서 ‘쇼와왕도’, 즉 “국체에 순화된 한학”이란 변은 사문회의 “황도에 순화된 유교”・“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론의 수용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 성당의 “부흥 준공”을 기념해, 동년 4월 28일의 “성당 부흥기념 유도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일련의 행사가 거행된다. 이에 관한 기록이 『유시마성당 부흥기념 유도대회지』(1936년. 이하, 본문에서는 『유도대회지』로 약술)이다. 이 대회의 주최 측은 사문회 역원들뿐만 아니라, 다이토문화협회의의 야마모토 데이지로(山本悌二郎, 1870-1937)・가토 마사노스케(加藤政之助, 1854-1941)・우자와 후사아키(,鵜沢総明, 1872-1955)・기노시타 시게타로, 그리고 동양문화학회의 히라노 기이치로(平沼騏一郎)에게도 초대장을 보냈다.[51] 그중 귀족원의원으로서 당시 제7대(1932.1.30-1938.1.27) 다이토문화학원 총장이었던 가토 마사노스케(加藤政之助, 1854-1941)는 근

50) 「昭和王道と世界平和」, 『斯文』 16-1, 1934.1, 8쪽. 또 이보다 앞서 시오노야는 『斯文』 10-11(1928. 11)호의 「중학교육 개선안에서의 한문과에 대해 천하 동우(同憂)의 식자들에게 고한다(「中学教育改善案に於ける漢文科を論じた天下同憂の士に告ぐ」)에서 다이토문화학원 유래의 “국체에 순화된 정신” 및 “황도에 순화된 유교정신”(35쪽)을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은 『경학원잡지』 30(1929. 12)호에서 「중학한문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소개하고 있다.

51)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斯文会, 1936. 17~18쪽.

래의 "일본유교의 재흥"을 경축하는 「유도대회 소감」을 남기고 있다.[52] 이 대회는 '대외'적으로는 중국・만주국・대만, 그리고 조선의 관련 인사들(18인)도 참가한,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유학세계'를 망라하는 차원의 행사로 치러졌다. 『유도대회지』의 「유학회의 개최를 위한 자금의 재단법인 사문회에 교부를 청원하는 건」을 보면, "삼국(일본・만주・'지나'－인용자)이 공유하는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널리 학자를 초청해 일대 대회를 열어 정신적 연락의 기회를 만듦으로써, 동문(同文)・동종(同種)의 신의를 두텁게 하고 동아민족의 결속을 꾀"[53]한다고 하여, 이 대회가 '동문・동종'으로서의 '동아민족'을 각인시키려는 행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교대회의 기(記)」에는 "생각건대 우리나라 교육의 대본은 먼저 메이지천황께서 내리신 교육칙어에 존재하는 바, 국민의 귀추와 교화의 전칙은 명백히 일성(日星)과 같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를 받들어 체득하고 궁행하기 위해서는 능히 우리 국체에 순화되고 민성(民性)에 순응한 학설・사상으로써 이를 보익하고 비익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자의 인의・충효의 도(道)와 같은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것임을 믿는다"[54]라고 하여, 사문회 본래의 사명인 '교육칙어'의 '봉체'와 함께, 성당 준공식에서의 도쿠가와의 메시지에 공명하는 "우리 국체에 순화되고 민성에 순응된 학설사상"이 대회전체를 관통하는 취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유도대회지』 학자군(群)의 기고문에는 이 같은 "황도에 융화된 유교" 혹은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 등의 서사가 흘러넘친다. 예를 들면, 도쿄제국대학교수로서 사문회 부회장 겸 총무였던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

52) 「儒道大会所感」,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312쪽.

53) 「儒学会議開設ノ為資金ヲ財団法人斯文会ニ交付ヲ請願スルノ件」,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2쪽. 「유도대회 개최에 이르는 경과개요」에는, 사문회 부회장인 사카타니 요시로(阪谷芳郎, 1863-1941)가 "동문동종인 동아민족을 결합하고, 아울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아 제국(諸國)이 공유하는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 대회를 열기를 발안"해 "이사회에 부의(附議)하여, 「유학회의 개설을 위한 자금의 재단법인 사문회에 교부(交附)를 청원하는 건」에 이르렀다고 적시되어 있다(「儒道大会開催に至る経過概要」,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1쪽). 한편 외무성 기록(1935~36년)에는 「「斯文会」－「聖堂復興記念儒道大会開催ニツキ補助金ノ御下付キ請願スルノ件」, 『聖堂復興記念儒道大会関係一件』이 수록되어 있다.

54) 「儒道大会の記」,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28쪽.

之吉, 1867-1939)는 “공자의 교(敎)가 우리나라로 전래된 이래의 천육백 여 년에 능히 우리 국체에 순화되고 국민정신의 근본에 배양되어 문화 발전에 공헌한 바가 대단히 크다”[55]라고 언급한다. 또 시오노야 온은 “공자의 교를 일본에 전해 이를 우리 간나가라노미치와 능히 융합・융화하여 우리 국체의 의식을 명징하고, 일본정신을 함양해온 것입니다. 우리 국체와 순화된 바의 공자의 교, 유교를 가리켜 한학이라고 말합니다”[56]라며 이전의 지론을 되풀이 한다. 다이토문화학원 교수였던 오야나기 시게타(小柳司気太, 1870-1940)는 “유교는 지나에서 온 것이지만 (중략) 우리들이 말하는 유교는 일본의 황도에 순화된 유교입니다”[57]라고 주장한다. ‘조선유교회’ 교정(教正)으로서 유도대회에 참가했던 안교환(安教煥, 1872-1942)은 “일본소칭(日本素称)동방군주국. 만세일계. 국체장엄. 고유지황도(固有之皇道). 여유교순화(与儒教醇化). 위도덕지원천(為道徳之源泉)”[58]이라는 문장을 남기고 있다.

한편 핫토리 우노키치는 “우리 국체에 순화되고 국민정신에 융회(融會)되어, 일본유교로서 성도(聖道)를 비익(羽翼)하여 받들었다”[59]라고 논하고 있는 바, 이 ‘일본유교’라는 용어는 『유교대회지』를 포함해 『사문』에 다수 보인다. 예를 들면, 동양사학자인 나카야마 규시로(中山久四郎, 1874-1961)는 유교는 “스스로 우리나라의 대도에 순화・순응하여 일종의 일본적 유교가 성립되었다”라든가, “효경을 말할 때도 충을 언급하는 것은 일본적 유도 발양의 일례”라는 의견을 제시한다.[60] 전자의 문장에서 나카야마가 “일본적 유교”를 거론할 때, 중국에서 전래한 유교를 “일본적 유교”화하는 전제인 “우리나라의 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적 유교”와의 대비적 관계에서만 제시될 뿐이다. 이밖에 『사문』에는 시

55) 「人の道」,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168쪽.
56) 「我が国体と漢学」,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160쪽.
57) 「儒教の更生」,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137쪽.
58) 「儒教為東洋大宗教布告文」,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392쪽.
59) 「人の道」, 173쪽.
60) 「日本的儒道の一考察」,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189 및 191쪽. 나카야마는 이밖에도 「日本的儒道の考察」(『斯文』 17-10, 1935.10) 및 「日本的儒道の考察(続－完)』(『斯文』 17-11, 1935.11)을 발표하고 있다.

오노야 온의 『일본의 유교』(『사문』 20-6, 1938.6)와 다카다 신지의 『일본유교의 일면』(『사문』 26-6・7, 1944.6・7)이 각각 게재되어 있다. 이 같은 "일본(적) 유교"는 1934년 1월에 다이토문화학원에서 시작된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로서의 '일본유교' 담론과 함께, '쇼와왕도'의 담론으로서 발화되고 있음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오타니가 "왕도에 대해서 황도란 말이 근래 빈번히 주창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주국이 새롭게 일어난 왕도입국을 표방하면서, 그 만주국 왕도에 대해 일본은 왕도보다 한 단계 위의 황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황정치를 황도라 일컫는 것에 적어도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황도와 마찬가지로 덕의 정치입니다. 만세일계 일본의 국체에 즉하여 황도라 말하는 것입니다"[61]라고 말한 발언을 통해 잘 대변된다.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로서의 '일본유교', 즉 '쇼와왕도'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을 치루고 있는 제국 일본에서, 동아시아역사 상의 중화제국의 '왕도'를 극복하는 원리로서 『사문』 등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기의 사문회

사문회는 중일전쟁 발발 후인 1937년 11월13일과 28일에 「유도보국 시국 대강연회」를 개최한다. 이의 결과가 1938년 2월에 간행된 『유도보국 시국 대강연집』 1집이다. 동년에 『유도보국 시국 대강연집』 4집까지 발간되었다. 사문회 회장 도쿠가와는 1937년 11월 28일의 강연회 '인사'에서, '국가총동원' 시대의 "우리 국체에 순화된 유도의 선양"이라는 사문회의 '임무'를 재확인하고 '유도보국'의 일환으로 "대강연회를 개최"하는 취지에 대해 발언한다.

> 대저 우리 사문회는 우리 국체에 순화된 유도의 선양을 임무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널리 동아학술사상의 공구에 노력하고 있다. (중략) 특히 시국의 전도

61) 「孔夫子の道と世界の平和」, 『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215쪽.

는 여전히 요원하여 국가총동원의 필요가 한층 긴요해진 바로 이때, 본회가 특히 여기에서 유도보국을 표방하면서 대강연회를 개최하여 조금이나마 국민정신 진작에 공헌하기를 바라는 것은, 원래부터 충량한 신하의 본분임과 동시에 이것이 공맹의 정신을 발휘·활용하는 까닭이라고 믿는 바입니다.[62]

'서문'에 해당하는 1938년 1월자 문장을 보면, "평소 우리 국체에 순화된 유도의 선양과 그 학술사상의 연구를 소임으로 하는 본회는 특히 사변의 경과와 사후의 시설에 관해 심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북지(北支)의 명랑화(明朗化)를 꾀함에 이르러, 그 근본 요의가 되는 것은 피아 상호의 참 이회(理會)·융화(融和)에 있음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 "소위 피아가 공통되는 여러 가지 점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의의 깊은 것"이 "유도의 사상"이라는 것이다.[63] 1937년 11월 28일의 강연인 「응징과 계몽」에서 시오노야 온은 "우리 사문회는 평소에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국체에 순화된 유교의 본의에 의거해 보국의 미성(微誠)을 다하려 이 유도보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64]라고 말한다. 나아가 "한학이 국체에 순화되어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부익해온 것입니다. 겐무(建武)중흥의 지도원리도 주자학의 대의명분론이며, 메이지유신의 유력한 저력은 미토(水戸)학의 국체명징론이었다고 믿습니다. 메이지천황의 국학과 한학 장려의 취지는 일대를 통해 일관해 오셨고, 교육칙어에서 말씀해주신 바는 실로 황조·황종의 유훈입니다. 유학의 경전은 그 적절한 주석서입니다"[65]라는 지론을 펼친다. 나카야마 규시로는 동년 11월 13일의 강연회에서 "우리들이 사문회를 창립해 국체에 순화된 유교로써 조금이나마 국가를 위해 미력을 다하기를 제군들과 함께 염원하는 바이다"[66]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

62) 『儒道報国時局大講演集』 1, 斯文会, 1938. 2, 1~2쪽.
63) 이와 동일한 문장이 1938년 2월에 발간된 『斯文』 20-2, 1~2쪽에도 실려 있다.
64) 『儒道報国時局大講演集』 1, 13~14쪽.
65) 『儒道報国時局大講演集』 1, 22쪽.
66) 「時局と文字及び文学」, 『儒道報国時局大講演集』 1, 47~48쪽.

한편 제2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내각의 '신체제'로 진입한 시기에 간행된『사문』23-1호(1941.1)의 모두 문장은 흥미 깊다. 오른쪽에는 1918년 9월 사문회 창립기의「사문회의 목적 및 사업」, 즉 "본회의 목적은 유도를 위주로 하여 동아의 학술을 천명함으로써, 메이지천황의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를 익찬하고 우리 국체의 정화를 발휘하는데 있다. (이하 생략)"[67]라는 문장을 싣고 있다. 그러나 서문에 해당하는 왼쪽의「영년(迎年)의 사(辭)」에는 "황도에 순화된 유교가 황운을 부익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다이토문화학원에서 발화된 서사로, 4장 1절에서 상론한 사문회 본래의「목적 및 사업」과 모순된다. 이러한 모순 내지는 '분열' 하에,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사문회 구성원들의 논의는 양자를 '절충'하는 발화 형식을 취한다. 1939년 7월 11일에 사망한 핫토리 우노키치 대신 사문회의 총무를 맡은 우노 데쓰토의「교육칙어와 신체제」에는 이러한 '분열' 및 '절충'의 발화 방식이 잘 드러난다.

> 이같이 참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이던 때, 메이지 23년 10월 30일자로 교육에 관한 칙어가 환발되었다. 사문회의 선배들은 13년 이래 황도에 순화된 유학의 진흥, 동양도덕의 선양에 노력해왔지만 이미 이 칙어를 받은 이상 사문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논의도 일시적으로는 있었다. 하지만 칙어를 익찬해 받드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사문회의 해산론은 사라지고 강의도 계속되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 칙어는 거의 혼돈의 상태로 가야할 방향을 몰랐던 국민들에게 그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제시하신 것이다.[68]

이 문장에는 '칙어'의 정신이 "황도에 순화된 유학의 진흥, 동양도덕의 선양"이라 서술되어 있다. 한편 태평양전쟁 발발 후인 1942년 5월 2일에 우노는「시국에 대한 사문회의 사명」이란 제목 하의 사문회「춘기 강연회」에서

---

67) 1943년 6월에 발간된『斯文』25-6의「사문회의 목적 및 사업」에는 "겸해 흥아(興亜) 이념을 선양함으로써 팔굉일우의 황모(皇謨)를 익찬함에 있다. (이하 생략)"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68)『斯文』23-1, 1941.1, 15~16쪽.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 **사문회는 황도에 순화된 유교로써 교육에 관한 칙어의 정신을 선양해 받들기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방식이 지나인을 열복시키는 방법의 하나라 생각하고 있다. (중략) 유교에서 취해야할 점이 많은 것은 우리 역대 성천자가 유교로써 우리 일본의 국민도덕을 배양해 오신 수많은 사력에 의해서도 분명하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홍도관기술의(弘 道館記述義)』안에 소상히 언급되어 있다. (중략) **우리 사문회는 황도에 순화된 유교로써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를 선양해 받드는, 간단히 말해 미토(水戸)학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69](강조—인용자)

강조 부분은 사문회 설립의 '취의서' 내용과, "황도에 순화된 유교"라는 다이토문화학원발의 서사가 그대로 절충되어 있다. 우노는 이 강연에서 사문회가, "유교에서 취해야 할 점", 다시 말해 "일본(적)유교" 상(像)이 "극히 요령 좋게 쓰여 있는"[70] 후지타 도코(藤田東湖, 1806-1855)의『홍도관기술의』로 귀착되는 '미토학'으로 있음을 분명히 한다.『홍도관기술의』가 다이토문화학원 본과(3년제) 과정의 주요 '황학' 텍스트의 하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노의 위 발언은 사문회 본래의 입장으로부터의 '전회' 혹은 '노선변경'을 극적으로 대변한다. 우노의 이 연설과 함께 이 시기 사문회의 입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글이 다가타 신지의「대동아전쟁과 사문」이다. 다가타는 공자의 '덕교'가 "우리 황도에 순화되고 오랫동안 황도를 부익하고 있다"[71]라고 논하면서, "구미사상의 모방"[72]인 중화민국 '삼민주의'의 "정치의 지도원리로서"의 위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이를 동양 고유의 치도 이념에 조합(照合)한다면 오히려 심히 올바른 방향으로부터 일탈하는 느낌이 있다. 그것은 만주족에서 일어난, 이전 청에 대한 혁명을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만대불역의 정치원리의 가치로는 모자람이 있다"[73]라는 것이다.

---

69)「時局に対する斯文会の使命」,『斯文』24-6, 1942.6, 12~14쪽.
70)「時局に対する斯文会の使命」, 14쪽.
71)「大東亜戦争と斯文」,『斯文』24-10, 17쪽.
72)「大東亜戦争と斯文」, 11쪽.

다카타는 '삼민주의'를 이와 같은 부정적인 타자로 새기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斯)의 도(道)'야말로 동양의 치도나 도의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공(周公)의 도는 '사의 도' 안에 그 이상을 실현하며, 따라서 황도에 순화된 유교야말로 대동아건설의 현하 시세에 가장 앙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문의 무리가 분기해야 할 연유도 또 실로 이곳에 있다 말해야 할 것이다"[74]라고 논한다. 이처럼 "그 이상의 실현을 보는" "우리 일본" 하에서의 "일만화(日滿華) 삼국을 관통하는 도의적 결성의 유대"를, 다카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75]

5. "유도의 진흥"과 "정치의 윤리화"

1) "유도의 진흥"과 "정치의 윤리화"

1943년 12월호의 『사문』에는 도쿠토미 이이치로(德富猪一郎[소호蘇峰], 1863-1957)의 「지나는 유교정신으로 돌아가라」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10월 23일자 마이니치(毎日)신문에 실린 혼다 구마타로(本多熊太郎)씨와의 대담기사에서 전재"한 것이다. 『사문』이 이 단문을 '전재'한 이유를 아래 문장에서 살펴보자.

> 공부자의 정신은 고토(後藤)씨의 말로 표현하자면, 소위 "정치의 윤리화"로서 고토백작의 그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공자 이래 벌써 이천년 남짓의 경험을 거쳐 온 유교주의다. 그 유교주의라는 것은 실로 동양인의 성격·기풍·취미·사상의 모든 생활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로 되어 변해가는 것이다. 여기로 지나인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76]

---

73) 「大東亜戦争と斯文」, 2쪽.
74) 「大東亜戦争と斯文」, 4쪽.
75) 「大東亜戦争と斯文」, 22쪽.
76) 「支那は儒教精神に還れ」, 『斯文』 25-12, 1943. 12, 6쪽.

도쿠토미는 “공부자의 정신”, 즉 ‘유교주의’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1857-1929)가 말하는 “정치의 윤리화”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유교’는 ‘동양인’의 모든 영역에 걸쳐 양분으로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치 일본은 진무(神武)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공부자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그런 전제 위에 도쿠토미는 “유교의 정신은 질서라는 것이 하나의 토대이다. 동양의 사상에는 질서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 질서라는 것이 즉 유교의 사상이다”라고 지적한다.[77]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고토와 교분이 깊었던[78] 도쿠토미가 여기에서 말하는 ‘질서’란 『정치의 윤리화』에 보이는 아래의 문장에 공명하는 것이 아닐까.

> (쇼토쿠타이시[聖徳太子]가—인용자) 제4조에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반드시 예에 있다”고 말한 바, 예에 있다는 것은 질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의 정치학설이 망각하고 있는 바를 천 년 전에 설파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일본국민에게 우리나라 정치의 윤리화는, 국민전체가 일대 가족이고 천황이 황공하옵게도 가장으로서 계시는 점에서 서양의 윤리와 성질을 달리합니다. 실로 야마토(大和)민족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79]

이처럼 「한학진흥에 관한 건의안」과 동양문화학회를 거쳐 다이토문화학원에서 발화된, 그리고 사문회가 적극적으로 그 발화에 가담한 “황도에 순화된 유도”・“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라는 서사는, 유교・유학(자) 측에서 다이쇼기로부터 쇼와전기 일본사회의 “국민전체가 일대 가족이고 천황이 황공하옵게도 가장으로서 계시는” “정치의 윤리화”를 향한 이데올로기 조성에 일조한 것은 아닌가. 한편 ‘황도유학(교)’는 일종의 자기 위상 획득을 위한 담론이기도 했다. ‘한문과폐지안’으로 인한 ‘한학’의 쇠멸 위기 속에서 유교・유학이 ‘황도’ 및 ‘국체’를 ‘보익’해왔다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국가신

---

77) 「支那は儒教精神に還れ」, 6~7쪽.
78) 高野静子編『往復書簡 後藤新平・徳富蘇峰 1895—1929』, 藤原書店, 2005년을 참조.
79) 後藤新平, 『政治の倫理化』, 大日本雄弁会, 1926, 41쪽.

도'와 '황도불교' 및 기독교 제파와의 동조・경합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위상 정립을 꾀해온 것은 아닌가. 즉 "황도에 순화된 유도"・"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는 그 같은 유교(학)계의 자기동일성 확보를 향한 기제로서 기능해온 왔다고 볼 수 있다. "황도에 순화된 유도"・"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라는 서사에서, '황도' 혹은 '국체'로써 중국 유래의 '유도'・'유교'・'유학'을 '순화'・'융합'해왔다는 발화방식에 의해 그 같이 '순화되는' 대상을 통해 '순화하는' 측, 즉 주체가 새롭게 구성되어 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도쿠토미가 논한 유교・유학의 "정치의 윤리화"로 연결된다.

2) '순화'라는 언어적 전략과 『국체의 본의』에서의 '일본유교'론

이 지점에서 『국체의 본의』(문부성편찬, 1937년 3월)에 나타난 '순화'라는 자기위상 확보를 위한 언어적 전략의 연속성에 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서언(緒言)」 넷 째 줄부터의 문장은 "일찍부터 지나・인도에서 유래한 동양문화는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간나가라(惟神)의 국체에 순화되고, 더욱이는 메이지・다이쇼 이래 구미근대문화의 수입에 의해 각종의 문물은 현저한 발달을 이루었다"[80]라고 되어 있다. 이 문장에는 중국이나 인도의 '동양문화'를 받아들인 '주체'인 "간나가라의 국체"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 이 "간나가라의 국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미리 적시되어 있지 않다. '결어'에서도, "생각건대 우선 힘써야 할 것은 국체의 본의에 바탕하여 제 문제의 기인(起因)인 외래문화를 순화시켜, 신일본문화를 창조하는 사업이다. (중략) 즉 이런 자각과 그에 수반되는 순화에 의해, 비로소 우리나라의 특색 있는 신문화 창조를 기할 수 있다"[81]라는 동일한 수사에 의한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상기의 "국체의 본의에 기반"한 '자각'이란 "충효 일본(一本)"[82]이라는 "국가적 도덕"에의 '자각'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80) 『国体の本義』, 文部省, 1937. 1쪽.
81) 『国体の本義』, 143쪽.
82) 『国体の本義』, 47~49쪽.

‘충효 일본’은 ‘국체의 요체’가 된다. 이러한 “국가적 도덕”은 도쿠토미가 인용한 고토의 “정치의 윤리화”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유교나 노장사상의 “개인주의적・혁명적 요소는 탈락”된다. 이와 같은 요소를 탈락시킨 위에서 “특히 유교는 우리 국체에 순화되어 일본유교를 건설하였고, 우리 국민도덕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컸다”라고 논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와 같은 충효 일본의 국가적 도덕으로서 완성되어 있지 않다. 가족적 도덕으로써 국가적 도덕의 기초로 한다. 충신은 효자문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지만, 지나에는 역성혁명・선양방벌(禪讓放伐)이 행해지고 있음으로 그 충효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영원한 국가의 도덕이 될 수 없다. (중략) 요컨대 유교도 노장사상도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구체적 국가의 기초를 가지지 않는 점에서, 개인주의적 경향에 빠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섭취됨에 이르러서는 개인주의적・혁명적 요소는 탈락되었다. **특히 유교는 우리 국체에 순화되어 일본유교를 건설하였고, 우리 국민도덕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컸다.**[83](강조—인용자)

『국체의 본의』에서는 이처럼 개인주의 및 효를 충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하는 중국과 인도, 나아가 서양사상을 “섭취・순화”[84]하는 전제로서 호출되는 것이 ‘황도’ 및 ‘국체’였다. 다시 말해 소위 ‘외래사상’을 ‘순화’하는 지점에 ‘황도’나 ‘국체’는 이미 대극적으로 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 일본의 자화상・아이덴티티 형성의 기제인 ‘황도’나 ‘국체’도 새롭게 창출되어오는 것이다.

83) 『国体の本義』, 146~147쪽.
84) 『国体の本義』, 148 및 155쪽.

6. '전후' 일본에서 '황도유학(교)' 담론의 행방 – 결론을 대신하여

'황도'나 '국체' 창출과정을 둘러싼 부(負)의 역사에 대한 물음의 결여는 다이토문화대학 학원사(學園史) 기술 상의 '무자각'으로 나타난다. 1973년에 발간된 『다이토문화대학 오십년사』(이하 『오십년사』로 약기)는 제1장 제1절을 "동양문화진흥제창의 유래"로 하여 대학의 "창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창립십주년기념 다이토문화협회 다이토문화학원 창립연혁』(1932년 10월) 제1장의, 제1차 세계대전 후 사상계의 "동탕・혼란"에 따라 쓰여진 「동양문화제창의 유래」의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즉 원래 문장은 "이 퇴세(頹勢)를 만회해 능히 국가를 정도에로 복귀시키는 것은 우리들 일본국민에게 매우 긴요한 일이다. 이를 광구할 근본책은 쇠미한 동양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있다. 특히 우리 국체가 세계만방에서 단연 뛰어나고, 도의의 세계에서 수절(殊絶)한 연유를 천명하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에 입각해 국민사상을 배양을 꾀하는 것 밖에는 방도가 없다. 그리하여 이런 주장이 점차, 세상을 함께 우려하는 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 찬동하는 바 되었다"[85]라고 되어 있다. 이를 『오십년사』에서는 "그러한 퇴세를 만회해 국가를 정도에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동양문화를 진흥시키고 도의의 함양을 꾀하는 것이 초미의 긴요한 일이라는 의견이 조야의 지식인들 사이에 유연(油然)하게 일어났다. 도의의 앙양은 황도에 순화된 유교, 즉 한학을 진흥시키고, 이로써 정도를 광구하려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당시의 내각을 움직이고, 마침내 다이토문화협회・다이토문화학원의 창립을 보기에 이르렀다"[86]로 개서되어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에는 '일본국민'이나 '국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있다. 더불어 후자에는 전자의 "도의의 세계"라는 용어가 가진 역사적 인식의 결여가 눈에 띈다. 여기에서의 '도의'

85) 『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1쪽.

86) 大東文化大学創立五十周年記念史編『大東文化大学五十年史』, 大東文化学園, 1973, 2쪽. 1993년 9월에 간행된 『大東文化大学七十年史』(大東文化学園)도 인용한 『五十年史』의 해당 문장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29쪽을 참조).

는 일본 '국체'를 상징하는 '천황제'국가의 "수절한 연유"를 묘사하는 자아상의 서사로 도입되고 있다. 후자의 문장에서는 전자의 그것과는 상이한 일반명사로서의 "도의의 함양"・"도의의 앙양"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곳은 "우리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에 입각하여, 국민사상의 배양을 꾀한다"가 "도의의 앙양은 황도에 순화된 유교, 즉 한학을 진흥시키고, 이로써 정도를 광구하려 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우리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에 입각하여"가 "황도에 순화된 유교, 즉 한학을 진흥시키고"로 수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체'라는 용어를 삭제한, '한학'으로서의 "황도에 순화된 유교"라는 수사적 변경만으로, 이 서사가 지닌 역사적 의미는 '우선' 종결될 수 있는 것인가? "황도에 순화된 유교"의 선양이라는 서사가 다이토문화학원 시대의 이념적 지향이 아니었던가? 여기에서는 자신의 부(負)의 학원사를 정면에서 반추하고, 또 그를 통한 단절을 향한 역사적인 인식과 자세를 표명하는 문맥은 보이지 않는다.[87] 『오십년사』의 편찬자는 "다이쇼7년에 하라(原)내각이 성립되자 기노시타 시게타로 등이 우선 동양학예의 진흥책에 관해 건언하였다"[88]를, "다음으로 그 경위를 약술하면, 다이쇼7년에 하라내각이 성립되자 기노시타 시게타로는 우선 동양학예의 진흥책에 관해 건언하였다. 즉 우리 국체에 순화된 유학을 진흥시키고, 이로써 일본정신을 앙양하는 것이 각하의 급무이자 우리나라 백년의 대계라는 취지였다"[89]로 부연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이토문화학원이 짊어져 온 "우리 황도 및 국체에 순화된 유교"의 부(負)의 역사적인 영위를, 기노시타 등이 "우리 국체에 순화된 유학을 진흥"시키기를 '건언'했다는 역사적 사실의 서술에로, 편집자는 전환시키고 있지 않는가?

한편 '전후'인 1948년 12월에 재차 발간된 『사문』 1호에서 재단법인 사문회 이사 마쓰이 다케오(松井武男, 1904－1993)는 "이제 구(舊) 이사회에 의해 단체의 성격이 개변되었다. 종래 사문회는 교화단체이자 학술단체이기도

87) 『五十年史』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관해서는 또, 「『大東文化大学五十年史』の批判的検討―戦前美化の呪縛を断ち切るために」, 57~133쪽을 참조.

88) 『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 1쪽.

89) 『大東文化大学五十年史』, 2~3쪽.

했지만, 지금은 순수 학술단체로서 동양의 학예를 연구하고 그 보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90]라고 피력한다. 또 이 시기에 『사문』을 복간하는 경위에 관해, 이사장인 이시카와 다다히사(石川忠久, 1932-)는 "『사문』은 당초 매월 간행되었지만, 전쟁이 격화될 무렵부터 합병호 등으로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후는 일시 중단되었다. 부활되고서도 전전의 옛 모습으로 복귀하지는 못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근년의 복간 100호 때부터 학술과 계몽 보급의 성격을 겸한 잡지로서 연 1회의 간행이 궤도에 오른 것이다"[91]라고 설명한다. 이 두 사람의 언급에는, 사문회가 "교화단체이자 학술단체이기도 했"던 과거로부터 "학술과 계몽 보급의 성격을 겸한 잡지"를 출판하는 단체로서의 지향성이 표명되어 있다. 하지만 "종래의 사문회"의 '교화단체'로서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종래의 사문회"가 식민지 조선의 경학원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한, '교화단체'로서 남겼던 부(負)의 사상적 유산에 관해서도 새롭게 추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는 필자에게 주어진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90) 「斯文会の更新」, 『斯文』 1, 斯文会, 1948, 5쪽.
91) 「序」, 『財団法人 斯文会八十年史』, 斯文会, 1998.

▌참고문헌

1. 자료

『경학원잡지』,『国体の本義』,『斯文学会報告書』,『斯文六十年史』,『財団法人 斯文会八十年史』,『聖堂復興記念儒道大会関係一件』,『戦時下日本文化団体事典』,『創立十周年記念 大東文化協会 大東文化学院創立沿革』,『大東文化學院創立過程基本史料』,『大東文化学院要覧』,『大東文化大学五十年史』,『大東文化大学の歩んできた道』,『東洋文化學會會報』,『東洋文化』,『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日本之儒教』,『儒道報国時局大講演集』,『湯島聖堂復興記念 儒道大会誌』

2. 단행본

加藤虎之亮,『弘道館記述義小解』, 文明社, 1944(초판은 1928).

高野静子編『往復書簡 後藤新平・徳富蘇峰 1895-1929』, 藤原書店, 2005.

後藤新平,『政治の倫理化』, 大日本雄弁会, 1926.

中山久四郎『現代日本に於ける支那学研究の実状』, 務省文化事業部, 1928.

3. 논문

강해수,「도의' 담론 : '황도유학'과 식민지 조선」,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동아시아한국학의 형성 - 근대성과 식민성의 착종』, 소명출판, 2013.

_____,「"皇道에 醇化・融合된 유교"로서의 '황도유학(교)' 담론 - 다이토(大東)文化學院과 경학원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5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9.

_____,「「皇道に醇化融合したる儒教」としての「皇道儒学(教)」言説 - 大東文化学院と朝鮮経学院との連環」,『アジア文化研究』47, 国際基督教大学アジア文化研究所, 2021.

浅沼薫奈,「大東文化学院創設者たちの教育思想―平沼騏一郎・小川平吉・木下成太郎の相互関係から」,『人文科学』17, 大東文化大学, 2012.

_____,「池田英雄著『修学の道場回想録―七十年前の想い出の糸をたぐりて―』(承前)―「大東文化学院」と「財団法人無窮会」との「分身同心」について」,『大東文化大学史研究紀要』4, 2020.

「皇道儒学(教)」の系譜学

－東洋文化学会大東文化学院斯文会における「皇道」と「国体」－

姜海守*

本稿は、1920年代から太平洋戦争の終戦に至るまでの帝国日本における「儒教・儒学」言説の形成を、「皇道儒学(教)」の系譜学考察により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この言説の形成には、日本社会における第一次世界大戦後の西欧思潮に対する反動と、満州国成立と国際連盟脱退によって生じた「孤立日本」という対外的な「非常時」における「皇道」および「国体」創出の必要性が関わっている。そして、それは、「皇道及国体ニ醇化セル儒教」としての「日本儒教」もしくは「皇道儒学(教)」概念の創出へと展開していく。言説形成の中心地となったのは、大東文化学院であった。同学院の設立は、対内的には、「漢文科廃止」論の声に対抗する形で発足した「東洋文化学会」を基盤とした。その「皇道及国体ニ醇化セル儒教」というナラティブは、当時の最大の「儒教・儒学(者)」団体であった「斯文会」に影響を与えている。

本論文では、こうした「日本儒教」もしくは「皇道儒学(教)」の系譜学を追跡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その作業はまた、同時期の植民地朝鮮において政策的に実践(articulation)された「皇道儒学」言説の思考連環を改めて照らし出す基礎的な仕事にもなるであろう。

キーワード：皇道，皇道儒学，日本儒教，漢学振興，国体，東洋文化学会，大東文化協会，大東文化学院，斯文会，政治の倫理化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8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18일

* Meijo University